



부안119구급방재단,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부안119구급방재단(대표 조철완)은 지난 4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기부이다.

부안119구급방재단은 부안 출신 청년농업인들이 조직한 드론 방제팀으로 방제가 필요한 작제적소서 활약하고 있다. 부안119구급방재단장 조철완은 "지역 후배들이 배움에 있어 소외되지 않는 교육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가치있는 일에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방제작업 후 수거한 폐농약병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모았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 지원금 등 2023년부터 전학년·전학기 연간 약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약2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불령협회,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부안군 불령협회(회장 김정호)는 지난 4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을 통해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2017년 50만원으로 시작된 기부가 7번째 기부이다.

김정호 부안군 불령협회 회장은 "배움에 있어 경제상황 등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는 학생들이 근농인재육성장학금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지역 청년들이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운동부, '영양공부 및 반찬 지원사업' 추진 중

남원시 운동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신동열/ 이하 운동부지사협)는 독거어르신과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40가구에 읍 4개 봉사단체(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회, 의용소방대)의 정성어린 손맛을 빌려 '영양공부 및 반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달반찬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보아 같은 존재로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으며, 직접 배달을 통해 안부까지 살필 수 있어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하는 등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생활개선순창군연합회 임원 취임식 개최

한국생활개선순창군연합회(회장 한경연)는 6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16대 임원 취임식과 2025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경연 신임 회장의 취임사를 시작, 부회장에 마금옥 복흥면생활개선회장, 감사에 박종숙 금과면생활개선회장과 김연순 동계면생활개선회장 각각 선임됐다.

또한, 연합회는 농촌 발전과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송기홍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공로를 치하했다.

한경연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왕일 기자

20년 성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 준비

정읍시 상수도 운영 주민설명회... 상하수도사업소 등 100여명 시민 참석

정읍시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수도센터가 참석해 약 1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의 내용,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시는 2005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0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 업무를 맡겨왔다. 시는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과 올해 1월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가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년간 누수량 절감을 통한



약 332억원의 비용 절감, 신규 상수도 시설 지속 투자·보급 확대,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 비상연계 관로를 통한 신속한 비상 대응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 시는 상수관로 약 2000km, 배수지 11개소, 가압장 6개소, 수도미터 약 5만 개 등 시가 소유한 모든 수도 시설의 개선과 운영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길 예정이다. 이 협약은 10년간 약 82억 7000만원 규모로,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통해 시의 재정 개선과 시민 대상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은진 신임 남원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선출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이은진회장을 제1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은진 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과 세계평화여성포럼 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당선을 통해 3년간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16대 회장 선출과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주요 활동 사항을 협의했다.



이은진 회장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1995년 조직되어 현재 13개 단체 2천 746여명의 여성 회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남원지역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자원봉사, 이웃돕기,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신임 이은진 회장은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회원들과 합심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남원민들기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 제1기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일동 고향사랑기부 동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뜻한 온정의 기막이 지난 3일과 4일에 이루어졌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1기 5급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분임 중 2개 분임이 고창 현장학습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를 하였다.

교육생 중 김용진농업정책과장 8분임 22명, 김애숙 공음면장 17분임 21명이 고창군에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41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5급 핵심리더과정에 참여한 고창군 교육생들의 적극적 호응과 분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고창에 방문해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정중한 고창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다고 하였다.

교육생들은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 있는 고창을 방문해 많이 보고 느끼고 힐링할 수 있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내 마음속 고향 고창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하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에 고향사랑기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공무원의 꽃 사무관 임용을 미리 축하드립니다"라며 앞으로 공직생활을 응원하겠다"며, "기부금은 고창의



순창소방서-곡성소방서, 인접 지역 재난대응 간담회

순창소방서는 6일 전라남도 곡성소방서와 함께 인접 경계 지역 화재 등 재난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곡성소방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 순창소방서와 전남 곡성소방서 인접 경계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 장비와 인력 지원 등 공동 대응체제를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불철 산불 조심 기간(1. 24~5. 15.) 중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 화재 공동 대응 방안 공유 △인접지역에서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협력사항 논의 △소방 장비 등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종진 현장대응단장은 "관할 인접 경계지역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기 우세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일 기자



인재 육성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올해로 제1회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가온조경건설 대표, 정읍에 고향사랑 500만원 기부

(주)가온조경건설의 허성준 대표는 6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읍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허성준 대표는 "정읍 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부에 다시 한번 동참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기부금이 더 나은 정읍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주신 허성준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온조경건설은 전주시에 위치한 기업으로 2014년 10월 설립됐다. 조경시설물, 금속구조물, 점토 벽돌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정읍시의회 박일 의장은 6일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 챌린지(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개되는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김관영 도지사를 시작으로 기관사회단체장, 체육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박일 의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읍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학수 정읍시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박일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순기 NH농협 정읍시지부장과 김진디 정읍시산병원장을 추천하였으며, GBCH 챌린지는 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은 6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고,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GBCH 챌린지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GBCH 챌린지는 하계올림픽 유치 구호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범도민 캠페인이다.

GBCH 챌린지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국내 후보 도시 최종 발표 시점인 2월 28일까지 릴레이 지목형과 자유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동통동 내 기관단체장협의회, 라면 기탁

남원시 동통동 관계자는 지난 5일, 관내 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50박스(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기관단체장의 자발적인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관단체장의 하나된 마음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는 기부였다.

이날 협의회는 가만 기탁후 동통동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 내 공동체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건강한 동통동 만들기에 한 발 더 앞섰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한양이엔지 장학금 200만원 기탁

(유)한양이엔지에서 6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양현민 대표는 "무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차 무주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을 뒷받침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유)한양이엔지는 무주읍에 위치한 산림설계감리회사로 2022년부터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무주=전문식 기자